

용접, 사상 및 도장 작업관리자에게 발생한 전신성 경화증

성별	남성
나이	38세
직종	용접, 사상 및 도장 작업관리자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는 2009년 7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용접 및 사상 작업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년 8월부터는 □소속으로 □사업장 내에서 생산공정(용접, 사상, 도장) 관리감독업무를 하였다. 근로자는 2017년 6월 대학병원 류마티스내과 진료를 통해 전신성 경화증을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업무 중 노출된 페인트 등에 의해 전신성 경화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질병 인정여부의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 작업환경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작업관리감독이었지만, □작업장에서 근무할 때는 수정 및 마무리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있었고,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도료자동배합장치가 고장 나면 직접 분해하여 수리한 적이 있었다고 하였다. 일이 밀릴 때만 수정 및 마무리 작업을 직접 했기 때문에 빈도를 특정하지는 못하였고 작업을 하면 최대 20개 정도의 제품을 맡았다고 하였다. 도료자동배합장치는 월 1회 정기점검을 하였고, 주 1회 정도 간헐적으로 수시점검이나 수리를 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사업장 관계자는 개발 초기 2-3개월 정도는 작업량이 많아서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납기를 맞추기 위해 작업을 많이 하는 경우는 있었는데, 직접 작업을 한 빈도나 시간은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도료배합장치는 주로 작업자들이 직접 관리하는데, 경우에 따라 정기점검이나 도료가 굳어 노즐 청소를 할 때 작업관리자가 돕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였다.

3. 해부학적 분류

- 피부 질환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

5. 의학적 소견

2011년 4월 이후 상병을 진단받을 때까지 전신성 경화증 및 다른 자가면역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은 없었고, 자가면역질환과의 관련성을 고려해 불만한 상병은 건강보험 수진자료상 확인되지 않았다. 2012년~2015년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흡연, 음주, 체중 관련 개선필요 의견과 경계 수준의 혈압상승, 혈당상승, 이상지질혈증 등이 있었다(혈압 140/90 mmHg 전후, 혈당 110 mg/dL 전후, HDL-콜레스테롤 40~44 mg/dL). 그 외 특이할만한 병력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는 만 38세인 2017년 6월 전신성 경화증을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2009년 7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절단, 용접, 사상 공정에 대한 작업관리업무를 하였고, 2015년 8월부터 상병을 진단받은 2017년 6월까지 □ 소속으로 용접과 도장공정 작업관리업무를 하였다. 전신경화증에 대한 환경적, 직업적 위험요인 중에서 역학연구를 통해 일관되게 연관성을 보이는 대표적인 물질은 결정형 유리규산과 유기용제이다. 근로자는 약 2년간 도장공정 작업관리를 하면서 간헐적으로 수행한 수정과 마무리 작업, 그리고 도료배합장치 점검과 수리 작업을 통해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신경화증의 위험을 높일 정도의 유의한 노출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끝.